

닛케이 사상 첫 4만 돌파... 올 외국인 순매수만 3조엔

2024.03.04 17:53 매일경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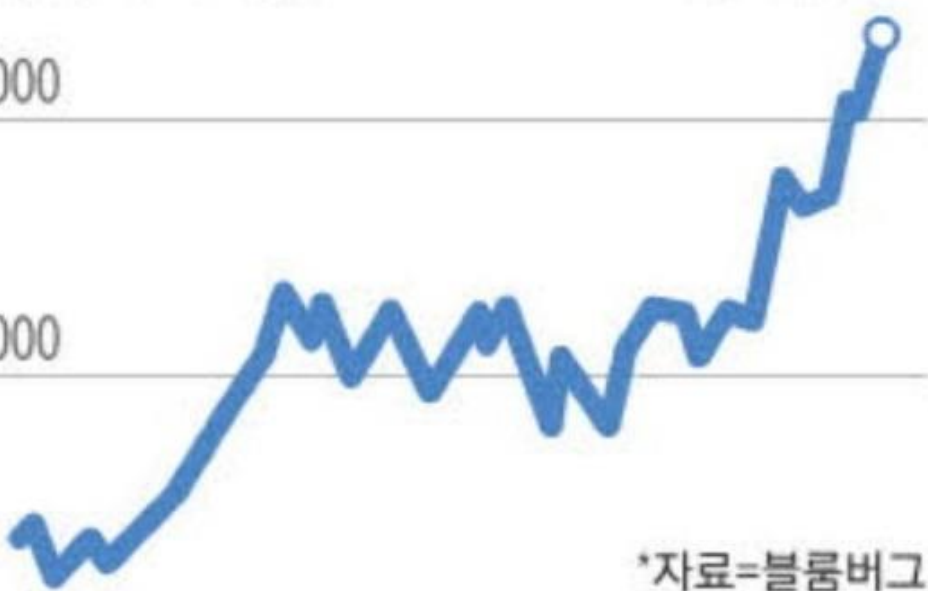
◆ 증시 훈풍 ◆

일본 닛케이지수

4만109.23

3만8000

3만2000



2023년 3월 6일

2024년 3월 4일

반도체 호황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문턱을 넘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을 품은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4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 상승한 4만109.2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말 미국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아 반도체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신에쓰화학, 소프트뱅크그룹이 주가 상승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일본 기업의 양호한 실적과 함께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주가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3조1000억엔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들은 올해 1~2월에만 3조엔대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닛케이지수 급상승의 이면에는 미국의 반도체주와 패키지로 사고 있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해외 상승세가 멈출 경우 일본 주식시장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도쿄 프라임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3분의 2의 주가가 하락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날 대만증권거래소에서는 대만 대표 증시 지수인 자취엔지수가 장중 1만9328.06을 기록하며 지난달 29일 종가인 사상 최고치(1만9036.14)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자취엔지수는 전일 증가 대비 1.86% 상승한 1만9287.46에 장을 마감했다.

대만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위탁 생산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다. 스스로 칩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팹리스(설계 전문회사)인 엔비디아는 제조의 대부분을 TSMC에 의존한다. 특히 최신 주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출시할 때마다 TSMC의 미세 공정을 활용해왔다. 자취엔지수 내에서 TSMC의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서울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